



어려운 미술시장 떠받치는 기업들… 작가 발굴·후원에 거장 전시까지

국내외 미술 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과 기관들의 지원은 미술계의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미술관 전시와 미술 장터(아트페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신진 작가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미술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이어가며 예술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29일 한국미세나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업의 미술·전시 지원 금액은 31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인 308억 6400만 원보다 12억 원(3.9%)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126억 9500만 원)에 비해선 2.5배 가량 커진 규모다.

지난 2018년까지 100억 원대 규모던 기업의 미술계 지원액은 2019년 200억 원을 넘어선 뒤 2022년부터 3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韓美세나협회-작가 연계 지원=기업의 미술계 후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미세나협회가 주관하는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이다. 협회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선정한 차세대 유망 작가를 기업과 연결해 주면 기업은 결연을 맺은 작가에게 3년간 창작금을 지원한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통해 이해민선 작가를 선정, 3년간 창작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차영석 작가를 후원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사업을 동참한다. 현대백화점은 단순한 후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협업까지 고려해 후원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도 지원한다.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유일한 정부 등록 1종 미술관 '현대아린이 책미술관(MOKA)'을 비롯해 전문 전시장 수준의 환경·환경 시설을 갖춘 더현대 서울 문화복합공간 '알트원(ALT.1)'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국화랑협회와 국내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내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한국 국제 아트페어·Korea International Art Fair) 서울'도 후원한다.

2021년 시작된 미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10개 기업이 참여해 14명의 작가를 후원했다. 현대백화점처럼 첫 번째 후원을 마친 후 다시 참여한 곳들이 다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2021년

전회경 작가에 이어 2024년 윤향로 작가와 결연을 맺었고, 벽산엔지니어링은 안상훈 작가 이후 이병호 작가를 후원했다. CJ문화재단은 정정주 작가를 지원한 데 이어 오제성 작가의 작품 활동을 돋고 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예술가를 선정해 지원하기도 한다. 종근당은 '종근당 예



1.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정부 등록 1종 미술관 '현대아린이 책미술관'.
2. 현대백화점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후원하는 이해민선 작가(왼쪽)가 현대백화점 관계자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백화점·한국미세나협회 제공]



2.

술지상' 올해의 작가를 선정해 주로 회화 작가를 지원해 왔다. 매년 만 45세 이하 회화 분야의 신진 작가 3인을 선정해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3년간 제공한다. 이는 미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근당과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201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총 42명의 작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떠받치는 기업 재단 후원=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백남준, 이은노, 천경자부터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깨미유 피사로, 살바도르 달리, 마르크 샤갈, 파블로 피카소 까지...,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개되자 관람객들은 설렘을 앓고 미술관으로 향했다.

한 곳에서 보기 어려운 작가들의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건희 컬렉션)을 유족이 기증했기 때문이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국내 작품 1369점, 국외 작품 119점 등 총 1488점에 달한다.

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해 수많은 기증과 후원에 힘입어 운영됐다. 같은 미술관 후원의 중요한 축에는 재단법인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가 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은 국

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작품 수집, 조사 연구, 교육, 정보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관 후원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된 전문 예술법인이다. 문화재단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단에 기부된 금액 총 16억 4790만 원이었다. 이 중 영리법인 기부금품이 9억 975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모금 단체·재단 등 공의법인 지원 금품은 6억 1722만 원, 개인 기부 금품은 3312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설립 이래 현대차, 현대카드, 아모레퍼시픽, 태영, 현대백화점, GS에너지, 두산, 신세계, 일진홀딩스, 네이버, 신영증권, 고려아연, 컴투스, 까르띠에 등 기업을 비롯해 SBS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대신송촌문화재단, 유중문화재단 등 여러 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미술관을 후원해 왔다.

현대미술관회는 국현의 발전을 돋고 일반인의 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술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1978년 발족한 비영리단체(NPO)다. 미술관 설립 초기에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 하던 교육 사업(현대 미술 아카데미)을 30년간 대행했으며 김환기, 이우환, 데이비드 호크니, 샘 프랜시스, 피터 할리, 제니퍼 스타인캠프, 임충섭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기증했다. 미술 작가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고양 레지던시 등을 기부채납한 것도 현대미술관회다.

현대미술관회 회원에는 국내 유수의 기업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서창우 한국파운드 회장이 현대미술관회 회장으로서 좌장을 맡았고, 홍라희 리움미

술관 명예관장과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명예회장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현대미술관회 명예이사로 활동하고, 주원석 미디어월홀 딩스 회장과 김연호 삼화제지 회장은 부회장단에 포함됐다.

▶정부 예산으로 부족…민간 후원 필요=지난해 8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MMCA X LG OLED 시리즈' 전시는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진 색다른 전시다. 이 전시는 LG전자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관의 개방형 전시 공간인 '서울박스'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장소 특정 프로젝트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과 장기 후원 계약을 맺고, 고(故) 김정열 회장의 회고전 'Kim Tchang-yeul'도 후원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과 재단이 미술계의 '끼다리 이자씨'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가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은 총 7조 8555억 원.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1.08%에 불과하다. 2025년보다 비중이 0.03%포인트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술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도 많지 않다. 지난해 문체부 전체 예산 7조 672억 원 가운데 ▶시각예술 직접 지원 680억 1000만 원 ▶국립현대미술관 지원 574억 6400만 원 ▶한국공·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65억 70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시각예술 지원 46억 8800만 원 등으로 미술 관련 예산이 총 1367억 3200만 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체부 예산 중 1.93% 규모며, 정부 전체 예산 대비로는 0.02% 수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구입해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시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미술은행아트뱅크' 사업은 2005년 출범 이후 올해까지 20년간 약 348억 원이 투입됐다. 연 평균 20억 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 유명 작가들의 대작을 사기에는 역부족이다.

미술 작가들의 창작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과 재단의 후원은 미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기업으로서는 미술 후원을 통해 환경·사회·지역구조(ESG) 경영을 실천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업계에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증액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세제 혜택이 많아 기부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우리나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높지 않아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다.

미술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늘어서 좋은 작가들을 키워야 미술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꽂피웠던 것은 예술가 후원에 적극적이었던 메디치가(家)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후원은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자양분이 되죠 K-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그들이' 있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새해 기획으로 우리 예술가들을 뒤에서 후원해 온 'K-메디치'를 조명합니다.

기업 미술지원 10년새 2.5배 성장

1기업 1작가 결연 등 신진 발굴
현대백화점 등 기업·작가 결연 활발

정부 예산 한계, 민간이 공백 메워
ESG 가치 실현 및 문화 저변 확대
기부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글싣는 순서

- ① '공연계 키다리 이자씨' 배우 김수로
- ② 개척자 뒤에 설계자…메세나 이어달리기
- ③ 이영애는 클래식·방시혁은 밸레 향한 이유
- ④ 미술계 '키다리 이자씨' 자처한 백화점
- ⑤ "티켓 몇장보다 철학을"…3%의 위대한 힘

미술계 버팀목 된 '법학도' 청년…“후원 징검다리 될래요”

"후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서초구청과 함께 청년작가 후원사업을 통해 발달장애 작가님들을 지원한 일입니다." 정승우 유중문화재단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랜 기간 미술계를 둑어주 후원해 온 베험복이다. 2011년 모친과 함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유중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가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선친의 가르침에서 시작됐다. 정 이사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외증조부께서 이북에서 6·25 때 피난을 오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불타는 학교를 보시고 항상 교육과 더 나은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하셨다"면서 "선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면 문화예술 후원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머니께서 우리 가 문화예술 후원이라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내게 역할을 줘 조금씩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장

정승우 유중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

선친 가르침 따라 사재 털어 후원

"법 전문가로 제도개선 기여하고파"

학금을 주고, 유중아트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젊은 미술 작가나 클래식 연주가 등을 선발해 전시나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활동 반경을 넓혔다. 2017~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태스크포스(TF) 위원과 문체부 미술 주간 조직위원, 한국문화사진진흥협회 회장으로 일했고, 2019년부터 대구사진비엔날레 육성 위원을 맡았다.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직접 후원을 해보니 후원은 지속적, 반복적, 전문적으로 해야 하고 진짜 후원이 필요 한 친구들은 많이 후원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느꼈다. 각자가 소소하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더라. 국가 기관이나 더 큰 기업들에서 해 줘

야 할 일 같았다.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을 통해 기여하면 더 체계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사로 함께 했고 좋은 프로젝트에 후원금도 내고 사업도 돋는 방식으로 바꿨다."

정 이사장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금 후원과 함께 연구 사업 등을 돋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설치된 백남준 작가의 '디나이선' 재가동 프로젝트 관련 연구 성과를 해외에 발표하는 사업과 미술관의 주요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해외에 배포하는 사업 등을 후원했다. 그는 "한정된 여력을 최대 한 뜻깊게 쓰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검증된 기관에서 추천해 준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석사, 상법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법 전문가로 문화예술 후원을 하는 것이 일견 의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사업을 잘 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국제거래법, 상법을 전공했는데 주로 국가 예술품 국제 무역

에 대해 연구했고 문화재 관련 논문도 썼다"면서 "법대를 나와서 법조인이 되는 길만이 법학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미술품의 국제 거래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유중문화재단 자체적으로도 커피빈, 우리 은행과 손잡고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직접 창작 스튜디오도 운영하는데, 이 스튜디오 출신 작가 중 주요 대학 미대 교수가 되거나 국내외 경매에서 작품이 활발히 매매되는 작가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기업에 비하면 나는 개미(투자자)이지만 보람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다"며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문화예술 후원 사업은 마음만 먹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 내 후원 활동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후원의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